

# “개발자는 수직적·꼰대?... 책임감 가득한 워커홀릭입니다”

## MZ터뷰

### 사람인 이창섭·홍의성·최재우 개발자

‘MZ터뷰’ 여섯번째 주인공은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 개발자들입니다.

사람인은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고, 커리어 관련 콘텐츠, HR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HR 기업입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이직러들이 애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최적의 매칭을 실현시키는 게 플랫폼의 주 골자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사람인은 AI를 비롯한 뛰어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HR 전문성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1,400만명의 개인회원과 550만개의 이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10만개의 기업회원이 매년 200만건의 공고를 등록하는 등 압도적인 플랫폼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람인의 경쟁력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와 앞선 기술력입니다.

사람인은 2016년 업계 최초의 AI 기반 추천 서비스인 ‘사람인 추천’을 선보였으며, 2022년에는 채용 플랫폼 업계에서 유일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의미까지 코칭해주는 ‘AI자기소개서 코칭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윈스톱 채용 솔루션 ‘사람인 MUST’나 AI 기반 인재 매칭 서비스 ‘인재풀’ 등, 사람인은 커리어 시장에서 변화하는 사용자 니즈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한발 앞서 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같은 사람인의 바탕에는 자체 AI·빅데이터 연구소 ‘AILAB’을 필두로 한 IT 역량이 바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업 및 투자도 활발합니다. 2020년에는 베트남의 리크루팅 기업 ‘애플랜서 조인트 스톡 컴퍼니(Aplancer Joint Stock Company, 이하 ‘애플랜서’)’를 인수해 베트남 현지에 직접 진출합니다.

사람인의 이같은 폭발적인 성장과 성과가 가시화 된 데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끊임없이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인HR은 플랫폼 기반의 IT 기업으로서, 200명 이상의 개발자, 기획자, UX 디자이너 등 IT 인력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각종 사회 이슈 등으로 인력난이 가뭇이 가는데, 사람인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IT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듯 보입니다.

이처럼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사람인 이창섭 IT연구소 전략팀(이하, 이), 홍의성 서비스개발1팀(이하, 홍), 최재우 빌딩파트 개발2팀(이하, 최) 3명의 개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개발자 3명과 대화를 통해 사람인은 공통적으로 ‘성실한 인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개발자 3명은 개발자로서의 사명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업무가 끝난 뒤 개발 동영상 교육 받는 등의 어느 ‘시니어 개발자’ 못지 않은

책임감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연신 보이는 미소와 종종 내비치는 합한 단어들은 MZ세대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로서 멋있으면서 유쾌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 기자의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했던 세대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아래는 그들과의 즉문즉답입니다. **-모두 개발자다. 각 팀만의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반적으로 유연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와 함께 좋은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뤄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팀 내 동료분들이 몇몇차 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합니다.

“



이창섭 개발자

배울 점 많은 시니어들  
꼰대·격식없고 수평적


이리스트를 공개한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첨되지는 않았습니...

**-어떤 복지가 있나.**

**최**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외부 교육을 지원합니다. 직무 관련 희망하는 교육이 있다면 교육기관과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책이 있다면 팀별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려 1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관련 및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를 초빙해 폭넓은 지식을 나눕니다. 직원들도 각자 직무의 전문가가 돼 강연을 개설하고, 실무에 필요한 지

유연하고 자율적인 문화  
MZ 중심 사내행사 많아



홍의성 개발자

**최 홍 이** 현금성 복지 포인트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목표 성과를 넘어야겠지요? 열심히하겠습니다.

**홍** 공유오피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입니다. 절대 저편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할인해서 다닐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인력난이 심하다. 취준생들이나 개발자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

**홍** 스펙보다는 실무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스타트업의 인턴이라도 지원해 의사소통 방법, 팀원과의 관계, 개발 업무와 비슷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소통·공유 활발  
화이팅·화기애애 분위기



최재우 개발자

**홍** 일단, 수평적 조직이다. 개발자들은 다소 수직적인 것이라는 오해가 종종 있는데 어느 팀보다 수평적입니다. 또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거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선택근로시간제, ‘님’ 호칭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 기본적으로 화이팅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공유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꼰대가 꼭 있지 않나.**

**이** 꼰대라기 보다 연차수에서 나오는 숙련 차이가 엄청납니다. 신입 입장에서 시니어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우고 싶어서 오히려 저를 그에게 어필합니다. 반대로 제가 꼰대같이 밥먹자, 커피마시자 라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일까요, 이제는 궁금한 부분이나 업무 관련 요청을 하면 즉각 해결해 주십니다. 약간 저한테 질리신건가.

**홍** 우리팀에는 워커홀릭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발팀이니까요. 본인이 집중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완전 칼퇴를 지향하는 직원으로, 칼퇴를 하게 되면 약간 눈치 보이는 정도?

**최** 꼰대 없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저를 오히려 그렇게 보실지도.

**-기억나는 사람인만의 사내 문화는.**

**홍**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영보드가 공지하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카네이션 만들기, 식목일 나무 심기,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직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상품을 줍니다. 상품이 엄청 큼니다. 1등은 애플 워치도 있었습니다. 최근 노래 관련 이벤트 때문에 나만의 플레

식 및 노하우를 공유해 우리만의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또 온보딩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OJT를 통해 적응을 돕습니다. 이외에 현금성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쏠쏠합니다. 전 옷을 샀습니다.

**홍** 사람인HR에는 ‘팬스타그램’과 ‘대숲타그램’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있습니다. 팬스타그램은 카페에 비치된 카드에 칭찬이나 감사, 위로 등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숲타그램은 익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공간인 ‘대나무 숲’에서 착안, 익명으로 다양한 제안/제언을 영보드에 전달하고, 반영해나가는 소통 활동입니다. 두 제도 모두 영보드의 제안으로 신설됐습니다.

저는 복지포인트로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최** 전 엄마한테 뺏겼지 말입니다.

**-회사가 추가했으면 하는 복지나 문화가 있나 (김용환 사람인 대표이사님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이** 저같은 경우는 인턴 전환이 돼서 어려웠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중간 기업 정도의 인턴 활동을 꼭 하시길

**최** 취준생 말고 3학년, 4학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교생활만 하지 말고 일환으로 개발에 대한 공부를 공모전, 창업 공모전 지원받아서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체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신입 개발자들이 업무 속도 능력이 점점 빨라지고 실력이 좋다는 것을 한 해가 갈때 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은, 월급으로는.**

**최** 자존심/저축합니다

**홍** 원동력/최근 스킨스쿠버 다이빙 슈트(TMI 140만원)를 샀습니다

**이** 보험/TV를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홍 이**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 ...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사람인 개발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섭, 홍의성, 최재우. /최빛나 기자